

[V]

소수치 잔존례에 있어서의 의치구성법 -의치 지지조직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접근

히로시마대학 치학부 치과보철학 제2강좌
Prof. Nagaoka

1. 개요

저작기능 중에 자연치 또는 의치의 교합면에 가해지는 저작력 혹은 교합력은 최종적으로는 치조골에 전달된다.

우선, 치주조직의 치조골에 생기는 교합성 외상이나 폐용성 위축등의 변화는 적절한 처치에 의해 회복가능한 것에 반하여, 자연치의 상실 및 의치의 장착에 따라 발생한 무치악제의 위축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치조골 반응의 차이는 자연치와 의치에 있어서 저작력 또는 교합력의 지지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따라서 치아는 될수 있는 한 보존하도록 노력하고, 의치구성에 있어서는 치주조직과 무치악제의 힘에 대한 응력의 차이를 이해하여, 그것들의 성상에 적합한 교합력의 지지방법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의치구성법에 있어서 교합력의 지지방법으로, 저자의 기초적 연구와 임상례의 경과를 관찰한 결과에 근거하여, 치아에는 치아장축방향의 힘을 부담하도록 하고, 무치악제의 부담을 될수 있는 한 경감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소수치 잔존례에 따른 의치구성법에 대해서 다음에 표시한 항목에 따라 설명하고자 한다.

2. 소수치 잔존례의 특징

3. 소수치 잔존례에 대한 대응책

- 1) 완압에 대한 고려
- 2) 힘에 대한 치조골반응 (치주조직과 무치악제에 따른 차이)의 관점
- 3) 치아는 치아장축방향의 힘에 잘 견디고 있는가?
- 4) 치아의 잔존상태는 양호한가?
- 5) 지대치의 식립상태 (특히 경사치)
- 6) 악제의 형태 (특히 전후적 경사)

4. 의치구성법

- 1) 의치
- 2) 지대치